

칼럼

장기채 주필



추석의 마음...엄마를 와락 안아보세요

추석이 코앞이다.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된다. 올 추석에는 아버지의 손을 살포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엄마를 와락 안아보세요. 그 마음이 추석 아니겠는가. 돌아와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난 속에서도 부모를 봉양했고 아이들을 서넛 이상 낳아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50년 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배가 늘어도 부모를 건사하기는커녕 비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부모도 모시지 못하겠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면 5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일까. 그런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쓸쓸한 시대지만 올해도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로 휴일 고속도로가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때도 반갑기만 하다. 올해도 경기는 썰렁하다지만 그래도 조상님 차례 상에 술 한 잔 올리며 가족이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민족의 대 명절이다. 모처럼 세상이야기 하다보면 술 생각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는

부모공경, 형제 우애 나누는 덕담이 제격일 것이다. 하지만 요양원과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없이 쓸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오죽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식들 열 굴이나 봤으면...' 하는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까. 추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큰 명절이다. 일 년 동안 가꾼 곡식을 거둬들인 햅곡식과 햅과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과 서로 나눠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속담 중에 '일 년 열두 달 366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팔월 한가위야말로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다. 또 우리에게 세시 풍속의 하나로 '아홉 차례'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십 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은 모자라게 사는 구분철학(九分

哲學)은 우리 한국인이 터득하고 살아온 처세철학이다. 밥은 배불리 먹지 말고 세력은 남김없이 부리지 말며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누리지 않는 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인생에 있어 욕심이 다 돈, 권력, 명예 등을 적정한 선에서 자제해야지 가득 채우려 하면 무(無)로 돌아간다는 구분철학의 구현인 것이다. 어쨌든 녹록지 않은 형편이지만 모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운 이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는 여전히 축복의 시간일 것이다. 이번 추석은 나흘 간의 황금연휴여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한가위날 이른 아침이면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 수확한 햅곡식과 색색으로 물들인 '송편'으로 차례 상을 마련해서 조상님과 신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올린다. 달 밝은 저녁에는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모여 흐뭇한 추석 놀이를 즐긴다. 이날은 송편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만월과 같은 둥근 모양의 '월병'을 만들지만 우리는 반달모양의 송편을 빚는다. 반달은 그것이 날마다 커지므로 발전의 상징으로 본데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고대 도성(都城) 이름이 대부분 반월성(半月城)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달과 가장 친근한 나라를 들자면 우리를 앞설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 밝은 한가위 풍속은 옛날과 같게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요즘처럼 자꾸만 차갑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추석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 어른들을 찾아 뵙고 차례를 지내는 일은 뜻 깊은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다. 그러나 이제는 못살던 과거와는 달리 의식(衣食) 풍부하며 근심걱정 없이 비교적 안락하게 살지만 조상 숭배와 부모님 찾아뵙는 일은 식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차례와 성묘하는 일은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그간 고향을 등졌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거나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가위 세시풍속을 잇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社說

재해보험 대상품종 늘려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재해보험의 극히 제한적인 품종으로 인해 아직도 다수의 품목이 재난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남과 보성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월동배추와 쪽파(실파)가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포함됐다니 기대가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과수와 시설채소 위주로 구성된 쪽파,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던 노지채소 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에 월동배추, 쪽파 등 신규 품목이 반영됐다. 9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월동배추, 쪽파(실파), 마

늘, 양파 등 4개 품목이다. 사업 지역은 마늘은 고흥, 양파는 함평·무안, 월동배추는 해남, 쪽파(실파)는 보성이다. 해당 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는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마늘 난지형은 9~30일, 마늘 한지형과 양파는 16일~10월16일, 월동배추는 10월4일까지, 쪽파(실파)는 10월25일까지다. 전남은 8월 말 현재 6만8324농가에서 11만1554ha 면적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농가 가운데 342농가가 총 8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에는 6만6919농가(10만4635ha)가 가입했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30297농가에서 146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실질적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만큼 농가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모두가 몽칠때 학교폭력은 소멸된다

아직도 학교폭력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지난해 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집단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폭력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현 상황이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이나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태

를 악화시킬뿐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해결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112, 117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피해자 피해 회복적 관계 및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 등 심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추진을 실시중에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하반기 개학을 맞이하여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정예화하고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찰체험활동 및 학

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장 단속 활동 및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재범방지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경제적 지원과 면담을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부모·교사·경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몽칠 때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나타날 것이다. 조현웅 /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